



관음사 천불보전 낙성

이두 청주 관음사 주지는 5일 오전 10시 혜정스님(법주사 율주)을 중명법사로 천불보전 낙성 및 천분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전남인 4일 오후 6시 부터는 관음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천불보전 낙성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도 개최한다. (043)256-6254

신홍사 미륵불 봉안법회

경우 해동종 종정(충주 신홍사 주지) 스님은 5일 신홍사 대웅전에서 미륵불 봉안 법회를 봉행한다.

원주 성불원 큰법당 준공

현각 원주 성불원 주지 스님은 10월 26일 성불원에서 큰법당 준공식 및 만동불사 법회를 봉행했다.

우룡스님 초청 수계법회

승암 안상 도피안사 주지는 5일 오전 10시 30분 우룡스님(학성선원 조실)을 계사로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031)3676-8700

정토사 삼층석탑 봉안법회

덕진 울산 정토사 주지는 1일 오전 11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창건 12주년 기념식 및 삼층석탑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정토회관 1층에서 10일까지 포교를 위한 도예전을 연다.

울곡학술대상 수상

송석구 동국대 총장이 10월 25일 열린 울곡학회 회의에서 '제2회 울곡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총장은 <울곡의 철학사상>을 비롯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 30여 편을 발표했다.

중앙서장 김시정 박사

호당 진각종 통리원 포교국장은 10월 25일 제55주년 경찰의 날 기

문화부장관 표창받아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고문(55)은 25년 동안 불교언론인으로서 불교의 대중화 및 불교문화 가꾸기에 이바지한 공로로 10월 25일 문화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넙식에서 경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 중앙경향서장으로

부터 감사장으로 받았다. 호당 포교국장은 중앙경향서 경승실 정기법회에 법사로 참석하는 등 경승실 활동에 공헌해 왔다.

청소년정책학회 2대회장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10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성서시조문학상 받아

이성호(부산 동래교육청 학무과장·사진 위)씨와 김복근(한국시조작가회 이사)씨는 10월 21일 부산 일보사 대강당에서 제17회 성서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인사

동국대 경주 △불교문화대학원장: 도입스님 △불교문화대학원 교학부장: 정성호 서울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박경준 △경상정보통신대학원 교학부장: 엄기현

“노천박물관서 현장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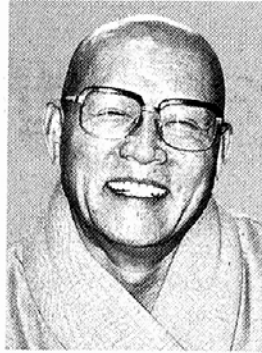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 불교문화대학원장 도입스님

“불교문화의 성지인 경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불교 문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신설된 불교문화대학원 초대원장 도입스님은 경주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현장 중심 연구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도입스님은 “불교문화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인 만큼 불교 음악과 미술의 체계적 연구는 물론 응용분야인 불교문화재, 사찰조경학, 종무행정학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입스님은 불교문화대학원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데다 경주 지역에 불교 문화재가 많아 현장 연계 수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



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학습도 게을리 하지 않는 내실있는 불교 문화대학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도입스님은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불교문화 연구를 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입스님은 66년 법사에서 출가 득도해, 89년 동국대 정각원장을 거쳐 99년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을 역임했다. 천희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봉사자만 3천명... 복지거목 성장”

설립 10돌 맞은 불교복지회 대표 지도 스님

“저야 뭐 한 게 있습니까. 모두가 일심으로 참여해 주신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대구의 불교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지도스님은 불교사회복지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게 된 공을 모두 불자들에게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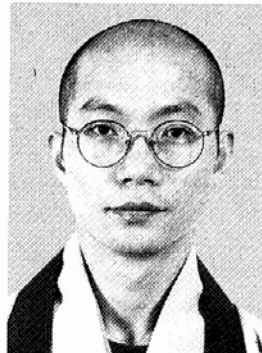
90년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해 뜻 맞는 40여명의 불자 후원자들과 함께 ‘나눔후원회’를 결성하면서 불교복지사업에 뛰어들어 지도스님은 이제 대구지역 복지의 큰 몫을 담당하는 중심인물로 자리를 굳혔다.

불교사회복지회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실직자를 위한 센터,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유리아린이집 등의 시설을 통해 계층과 분야별로 두루 복지사업

을 펼치면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만 해도 3천여명이 넘는 대규모 복지법인으로 성장했다.

“후보보다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원봉사자들이 후원자가 되고, 한 번 같이 일한 불자들은 떠나지 않고 모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사회복지회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스님은 요즘 지역 복지공동체 건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빠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한국형 복지형태와 선진형 복지형태의 장점 혼합한 복지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제 복지는 ‘보호’가 아닌 ‘보장’의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공동체는 그런 여건이 갖춰질 때 가능합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수행하는 사이버 도량 지향”

유니텔 불교동호회 새 시삽 오기석 씨



“수행과 교리 공부로 신심을 키우며 봉사활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신행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9일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 새 시삽으로 선출된 오기석(48·LVMH코리아 근무)씨는 “수행 중심의 부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시삽은 PC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행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모임 활동과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불교포교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 오 시삽의 생각이

다. 그래서 그는 매주 목요일 강남포교원에서 봉행하는 참선법회에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염불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동문서주하고 있다.

경전공부, 참선, 염불, 봉사활동 모두가 수행이라 말하는 오 시삽은 앞으로 콘스님 초청 법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가상공간에서는 맞출 수 없는 신행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opia.com)

만해문학상 수상



임형택 성관관대(사법대학 학문교과) 교수는 10월 25일 제15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73년 창작과 비평사가 제정한 만해문학상을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닌 문학연구가가 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원들은 “문학의 외연을 유연화하기 위해 비창작 분야에도 주목하고자 했다”며 “임교수의 저서 <실사구시의 한국학>은 문학과 예술과 사상과 역사를 하나로 꿰어 학문의 장관을 보여줬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조직보강 사회참여 강화”

대불청 새회장 김규범씨

“당선된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청년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불교청년회의 전국 조직 재정비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0월 22일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제21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규범(41) 회장은 당선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대불청은 그동안 청년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 제시가 없어 조직 자체가 표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지구·지회 재정비와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전국조직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만해대학 활성화와 통일 의전 규범집 발간 등 교육 사업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지회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정착시키고 수익 사업을 확충해 대불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김 회장은 “중앙 상근자를 최소 5명 이상 보완해 전문 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 운동과 통일 운동 등 사회 참여 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규범 회장은 92년 봉은사 청년회장을 거쳐, 지난해에는 대불청 중앙 부회장을 지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opia.com)



공덕원 창립 20돌 기념 장학금 전달

공덕원(주지 효선)은 10월 20일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공덕원 회주 용산스님을 비롯해 강로사 주지 혜종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스님, 이화여 부신불교대학 학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금정중학교 김현철 학생과 덕명정보영고 김선미 학생 등 30명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범어사 지장암 어르신 위안 잔치

범어사 지장암(주지 묵화)과 사단법인 보현도량(이사장 벽파)은 10월 25일 지장암에서 ‘노인과 불교복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5회 부산 노인위안잔치를 열었다. 벽파스님 등 부산 지역 노인 1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묵화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the 29th Memorial Service of Master Jeongtan (青潭大宗師 29週忌 追慕大法會 案内). Includes details about the date (Nov 15), location (Samsa Mountain), and organizers (Jeongtan Buddhist Association).

Advertisement for Cheongdongbulsang (청동불상 제작 전문). Features images of various Buddhist statue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tudio, including address and phone numbers.